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로동신문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위대한 수반이신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3호 【루게 제 27133호】 주제 110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가 6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성원들이 참가하여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

었으며 조직문제가 토의되

었다.

확대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전반

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단위 지휘관들을 해임 및 조동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인민

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

군대사업실태에 대하여 분석

문제가 취급되었다.

하시고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본사정치보도반

틀어주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과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당과 혁명 사업, 국가와 인민의 리익, 사회주의 건설을 보위하는 신성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건설로선과 방침들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확대회의에서는 일부 군종, 군단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 연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 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썩각하

나는 로씨야연방 국경전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로씨야연방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친선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입니다.

나는 로씨야 올라지보스토크에서 진행된 우리들사이의 첫 상봉이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조로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고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과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제 110(2021)년 6월 12일

평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핵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오늘의 전인민적 총진군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총성의 대진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정신을 빼고 새기고 백절불굴의 혁명신념과 의지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정신력의 강자입니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은 혁명과 건설의 전진동력이며 국력중의 제일 국력이다. 인민대중이 견인발발의 정신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게 되며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한 몸바쳐나서는 일심단결의 정신력도, 우리 식대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자존의 정신력과 체질을 믿고 모든것을 자력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정신력도 그 기저에는 수령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이 놓여있다.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수령의 권위를 결사옹위하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수령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

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있다. 정신력은 사상의 힘, 신념과 의지의 힘이다. 투철한 사상, 억척불변의 신념에서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비상한 힘이 발휘되게 된다.

우리 인민이 지닌 강한 정신력은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대로, 총비서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나아가는게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철석의 신념이다. 이 숭고한 정신세계에 떠받들려 온 사회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의 대로만 숨쉬고 움직이는 하나의 전일체로 더욱 공고화되고 전제 인민이 나라의 어려움을 자기 집일처럼 여기며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행동을 일치로 보장하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은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하며 시련의 고비들을 헤쳐온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은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사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며 그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고 승리이라는 철리를

세겨안게 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만 계시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대업도 실현해나갈수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은 우리 인민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에도 용약 펼쳐어나고 사상초유의 대재앙에도 강력히 대처해나갈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과 같은 수령숭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애록과 흠모, 절대적인 신뢰심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배가해주는 사상정신적자양분으로, 모든 기적과 위훈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봉화한 정신력의 강자들이 우리 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수령의 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결사판철의 정신을 근본 초석으로 하고있다.

결사판철은 우리 인민특유의 투쟁정신, 혁명방식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거창한 대건설을 작전하시던 건설의 대번영기로 화답하고 정면돌파전을 호소하시면 자력자강의 힘찬 포성으로 호응해나서는 우리 인민이다. 수령이 바란다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있어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기적적성과들이

이룩되고 이 땅우에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시련이 겹쌓일수록, 투쟁과업이 방대할수록 더 높이 발휘되는것이 우리 인민의 강한 정신력, 결사의 실천력이다.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완벽하게 관철해나가는 혁명적 기풍속에 남들같은 수신훈이 걸려도 헤내지 못할 력사적대업이 단 몇해동안에 빛나게 실현되고 결쌍이는 시련속에서도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가장 순결하고 진실한 충의심을 지니고 수령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의 행동실천으로 받들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인민은 없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남김없이 파시되고 있다. 시련과 난관이 엄중하고 투쟁과업이 방대하여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총성의 일편 단심을 간직한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굳게 간직하고 오늘의 총진군에서 불굴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야 할것이다.

충진력